

신재생

산업이슈 브리프

Check Point

- 신재생 투자의견 Overweight 유지
- 금리 피크아웃 수혜 기대감 고조
- 태양광 및 풍력 업황 업데이트

금리 인하 기대감, 신재생을 춤추게 해

Analyst 이주영 - juyzong@ebestsec.co.kr

고금리로 오래 쉬었던 재생에너지 섹터, 이제는 반등할 때

▶ 전일(12/19) 미국 국채금리 추가 하락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업종 전반 주가 크게 상승.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금리 인하와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심화되는 중. 신재생은 고금리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던 섹터로 금리 피크아웃에 따른 수혜 기대감 역시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판단. 신재생 업종에 대한 투자의견 Overweight 유지하며 업종 내 Top pick으로 한화솔루션과 씨에스윈드 제시

태양광 업황 업데이트

▶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공급 과잉에 따른 밸류체인 전반의 가격 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여전히 강한 수요를 바탕으로 양호한 흐름 이어갈 전망. 모듈 가격 하락 지속에도 불구하고 1)원재료인 웨이퍼 가격이 더욱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2)수요 증가가 이어짐에 따라 악영향 상쇄 예상. UFLPA(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에 따른 진입 장벽이 존재해 타 지역 대비 여전히 높은 모듈 ASP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

풍력 업황 업데이트

▶ 초기 투자비용이 막대해 부채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풍력 산업은 높은 금리가 특허나 부담으로 작용한 바 있음.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가 더욱 크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 금리 피크아웃 기대감 고조에 따라 씨에스윈드를 풍력 업종 내 Top pick으로 제시

▶ 전일(12/19) EU 26개 회원국이 풍력발전 설치 확대 지원책(European Wind Power Action Plan)에 서명. 2022년 3월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감축하고자 발표한 REPowerEU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지침으로 크게 6가지 지원 방안이 포함 – 1)허가 절차 가속화, 2)입찰제 도 개선, 3)공정한 국제 경쟁 환경 조성, 4)금융 지원, 5)기술 발전, 6)회원국 간의 협의. 금번 합의로 유럽 내 풍력 설치량의 빠른 확대와 비용 부담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2030년까지 유럽 내 풍력 설비용량을 510GW로 늘릴 전망이며, 특히 해상풍력 에너지 목표의 경우 2030년까지 기존 61GW에서 111GW로 상향 조정.

▶ 금일(12/20) 국내 풍력 프로젝트 최종 낙찰 결과 발표. 5건의 해상풍력 프로젝트(1,431GW)와 4건의 육상풍력 프로젝트(152MW)가 최종 낙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이주영)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돋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 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 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15% 이상 기대 -15% ~ +15% 기대 -15% 이하 기대	91.4% 8.6%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20%에서 ±15%로 변경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2. 10. 1 ~ 2023. 9.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